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열왕기하
야고보서
구역예배 · 갈라디아서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열왕기상, 하
야고보서
구역예배 · 갈라디아서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 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무엇을 보십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눅11:34-36)

사랑하는 충현의 지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락을 추구하는 세상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욕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선을 그 헛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과 고통은 계속되며,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괴로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혹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가득차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집중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욕심과 환난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십시오.

2000년 3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 2000년 3월 —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야고보서서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 보다 더 악한 것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매일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의 생애 말엽인 AD 50년 이전 (아마도 45년 직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야고보는 AD 62년 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작연대를 이렇듯 이른 시기로 추정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이방인 신자와 유대교 신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가 교회를 초기 유대교 공동체인 회당(2:2)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AD 49년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문체가 짧을 뿐 아니라 도덕적 훈계를 담고있는 지혜 문학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 뿐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물론, 그의 서신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를 대단히 심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요내용

1. 믿음의 시험(1:1-18)

2. 믿음의 특징(1:19-5:6)

- 1) 믿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1:19-27)
- 2)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2:1-13)
- 3)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2:14-26)
- 4) 믿음은 혀를 통제하는 것(3:1-12)
- 5) 믿음은 지혜로 나타나는 것(3:13-18)
- 6)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4:1-12)
- 7)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4:13-5:6)

3. 믿음의 승리(5:7-20)

열왕기하 서론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구속사 안에서의 열왕들의 드라마는 열왕기하에서 계속됩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한 19명의 악한 왕들에 의해 통치되던 북 이스라엘이 앓수르에 의해 멸하여지면서 일시적으로 남 유다는 경건한 왕들의 헌신 속에서 빛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 유다도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멸하듯 바벨론에게 삼키우고 맙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는 BC 853년에서 722년까지 131년의 세월을 담고 있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히스기야의 통치(BC 715)로부터 여호야킨의 석방(BC 560)까지 약 155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시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열강들의 세력이 넘실대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곡예하듯 국제정치의 틈에 끼어보려고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했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성소가 회복되고 진실한 예배가 살아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의지만이 그들의 생명이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주요내용

1. 오므리 왕가 아합 자손들의 통치기(1:1-8:29)
2. 예후와 오므리 왕가의 종말(9:1-10:36)
3. 예후 왕가의 통치기(11:1-14:29)
4.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15:1-17:41)
5. 히스기야의 신앙부흥(18:1-20:21)
6. 므낫세와 아몬에 의한 타락복귀(21:1-26)
7. 요시아(22:1-23:30)
8. 유다의 마지막 운명(23:31-25:30)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당신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당해보지도 않고 아예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리지도 않은채 숨은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를 심히 싫어하는 아합왕과 그리고 또한 그의 추종자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심각하게 조롱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게 될 이 세기의 영적 대결은 1:850이라는 숫적 불균형 속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기기는 커녕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코너로 몰아잡니다. 송아지를 잡아 단 위에 올리고 아침부터 오정까지 제단 주변을 뛰며 그들의 신을 불러도 그들의 신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기 까지 했으나 대답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조롱이 시작 되었습니다. 너희들 신이 잠에 들었거나, 외출을 했을지도 모르니...응답이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롱이나 핍박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 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신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 하실줄을 확신 했습니다. 그가 먼저 행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30절). 그리고 제단을 둘러 깊은 도랑을 내고 그곳에 물을 길러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순간에 자신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이 많은 무리들로 알게 해 달라고 간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훔아 버리는 하늘의 불로써 응답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어쩔수 없이 우상앞에 섰던 많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과연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39절)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일을 해결할 때 항상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안았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시돈의 공주로 있을 때부터 섬기던 바알이 패한 것을 보고, 그가 가진 힘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과 힘 앞에서는 무력해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야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가는 길에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간청 했습니다(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도 포기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을 죽여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묵살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심하게 지친 엘리야를 만지시고 회복 시키십니다(5,6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 시키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새힘을 얻고 40일 40야를 걸어 간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 시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말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극심한 영적 전투 때문에 심하게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로뎀 아무 아래서의 탄식과 같은 신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때문에 혹은 많은 일들 때문에 극도로 심신이 피곤 해지고 짜증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않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새로운 영적 충전을 위해서 이갈림을 받은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견책 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13절). 엘리야는 그저 주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힘써서 일어나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일어나 호렙산으로 갔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고 키우는 일 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예비 하시고, 엘리야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엘리사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골에서 열두 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외모로 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삼상 16:7). 엘리야가 그의 겹옷을 엘리사 위에 던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서 따른 것처럼 그도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겸손히 그리고 즉시 따라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경기장에 나가면 세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요 둘째는 구경하는 관람객이요 셋째는 경기와는 상관 없으면서도 관람객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람객 중에도 두종류의 관람객이 있습니다. 한편을 응원하는 쪽, 또 다른 한편을 응원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쪽의 이기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선수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 되어졌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람왕 벤하닷이 침공했습니다. 사실 아합의 행위로 보자면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 해야 할것입니다.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凌辱)했습니다. 벤하닷 앞에서의 아합은 마치 코끼리 발 밑에 깔리게 될 개구리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신(神)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벤하닷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됨을 보이시겠다"(13절)고 일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변변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벤하닷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21절).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깁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합에게 패한 벤하닷이 아합에게 구걸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31-34절).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과 벤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신 것은 아합 자신의 공화를 드러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보내시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진멸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수6:21). 또한 사울에게 아말렉을 붙이실때도 남김이 없이 진멸 하라고(삼상15:3)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리고 성의 진멸과 아말렉 성의 진멸 그리고 아람의 진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사울왕은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삼상15:23).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욕한 자입니다(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 위해 아합의 손에 붙였습니다. 따라서 벤하닷을 살려보낸 아합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변장하고 왕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벤하닷을 살렸기 때문에, 아합이 저의 목숨을 대신 할것” (42절)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아합은 벤하닷을 풀어준 위약(違約)으로 말미암아 발발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戰死)하고 말았습니다(22:29-38).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철저한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100%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에게는 공연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 동료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를 보면 괜한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아합시대에 살던 나봇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합은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하나있는 포도원을 탐내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일에 있어서도 교활하고 악랄한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공로가 컸습니다. 철의 여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둘을 세워 나봇이 왕을 저주 하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성밖으로 끌고가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 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 서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지도록 행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연한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주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하면서도 기뻐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함이 위(位)에 있는 동안에 왕으로서 그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함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함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누구보다 바알을 더 음란하게 섬기고 백성들을 악한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함 가문에 임박한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22절). 아함은 믿음에 있어서 가정의 제사장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내 몰았으며, 스스로도 사악한 일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악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당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이 시험을 받아 실족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읍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들에서 죽은 자들을 새가 먹는" 엄청난 최후를 맞은 아함 가문과 같이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서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레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귄 때에는 반드시 '멍에를 같이 매는'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쓰디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동맹을 은연중에 합리화하거나 부추기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자와의 동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이방 세력과 동맹을 맺어 그 나라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인간편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합 왕은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을 영적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 여호사밧 왕이 분단 이후 최초로 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북 동맹을 시도합니다(2, 4절). 물론 동맹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남왕국 유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상이 유다 왕국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엄청난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은 동맹의 증표로 아합 왕의 딸 아달라를 자부로 삼음으로써 후에 유다 왕국의 존립과 신앙에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와 절대로 동맹을 하지 맙시다.

▶기도제목 / ①신앙 없는 자와 동맹하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신앙이란 한마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과 거짓 영 사이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실을 말합니다. 반면 거짓 영은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반면 거짓 영은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골라 전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거짓의 영이 주는 현란한 유혹과 영광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음흉한 덫을 간파할 수 있는 영안(靈眼)과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당 왕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이릅니다. 약 사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직업적인 선지자들이었기에 왕이 바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14절).

당신 같으면 400대 1이라는 가부(可否) 통계를 접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왕은 우리의 예견처럼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는 쪽을 택했습니다(25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통계 수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한 사람 속에 있습니다.

매순간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 기도제목 / ① 매순간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싸움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싸움을 시도했고, 결국 그 대가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수없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삼년 육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의 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환난에서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사실일까봐 두려웠는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사병으로 변장을 하고 군사들 틈에 끼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아합의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에게 날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장한 아합 왕에게 날라왔습니다. 성경 기자는 문제의 화살이 '우연히' 날라온 것처럼 표현했으나(34절)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예언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합 왕의 위장술은 아람 군대의 눈동자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입니다.

▶기도제목 / ①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싸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나 그네 인생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반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완전히 상반된 길로 걸어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43절)로 갔습니다. 아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길입니다. 즉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제사를 드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가 지은 모든 우상을 찍어 불사르는 등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한 신앙을 지킨 길(참조. 왕상 15:11-15)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하시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52절)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입니다. 즉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벰엘과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한 것,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 절기의 달을 율법과 달리 7월에서 8월로 정한 것 등 여호와와의 노를 격동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제목 / ①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13

(월) 시련의 시험, 위장된 축복

찬송/395장 본문/약1:1-8

유 덕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의 살갓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수일이 지나자 고름이 생기고 이상한 반점이 돌기 시작하면서 문둥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하루 아침에 문둥병자가 되어 집과 동네를 떠나야 했는데 그 시련이 너무도 감당키 어려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소록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비록 나병으로 다리는 절단했지만 완치 받아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 전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만납니다. 시련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 (2절)고 말합니다. 시련 자체가 기쁘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으며 미래의 소망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12절). 시련은 '믿음의 진정함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과한 자는 순도 높은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시련의 배후에는 우리를 순도 높은 신앙으로 빛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의 시험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 기도제목 / ①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날 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영자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그녀는 먹음직스러운 햄버거와 시원한 콜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자주 눈에 띄게 해서 과식을 하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뿐만 아니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세 상에는 음주나 흡연, 성적인 범죄, 컨닝, 낙태 등 온갖 유혹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유혹을 만날 때 우리는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혹은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13절)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14절).

물론 유혹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안짓고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 사단의 술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 치셨음을 기억합시다.

유혹의 시험은 위장된 사단의 술수입니다.

▶ 기도제목 / ① 사단의 술수인 유혹에 빠지 않도록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518장 본문/약1:19-27

나 군가가 말하고 있을 동안,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좀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습관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덜 말하고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19절). 사실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는 경청하지 않고 속단하여 분을 발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연약함의 소치이겠지만, 분명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위 곧 경건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경건의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말(言)입니다.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절제 있는 언어 생활로 나타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

경건으로 표출되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제목 / 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경건한 삶으로 표출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자 동차 기름으로 얼룩진 옷을 입는데다 얼굴도 씻지 않은 채 이상야릇한 케케묵은 냄새를 풍기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를 보고 그 상품을 평가하듯이, 우리는 첫 인상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차가운 사람 등.

예컨대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인상이 박힌 사람은 그 인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 그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직분을 맡을 수가 있지?'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1절)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5절) 사람들을 팔시하는 것(6절)은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라면(5절)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8절). 나는 어떻습니까? 혹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 기도제목 / 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딱지를 붙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면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행위 없는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에게 행함이 없다면, 사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움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없는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리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다줄 뿐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면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 / ①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한 번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보지 않은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선생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존경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혀는 몸으로볼 때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힘센 말(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재갈입니다. 거대한 배를 통제하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큰 숲을 불살라버리는 것은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혀가 비록 작지만, 결코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애를 좀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결코 저주용으로 사용될 수 없고, 찬송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쓴 것이 아니라 단 것이어야 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이 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군을 세우고 스스로 통제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도록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독을 머금은 입이 아니라, 치유의 입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는 작지만 위력적입니다.

▶ 기도제목 / ① 덕을 끼치고 은혜롭게 다듬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시대가 어렵고 어지러울수록 지혜자가 요청됩니다. 지혜자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지만, 우둔한 자는 싸움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사원, 지혜로운 성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선생은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생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심과 다툼, 자기 자랑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늘의 지혜는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적이며, 긍휼이 풍성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까다롭지도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순수합니다.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은 지혜야말로 화평과 의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데,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고,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근본이 좋아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결코 마귀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뿌리에서 맺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이 혹시 악한 근본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참된 지혜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 기도제목 / ① 하늘의 음성에 귀기울이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간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갈등하고 다텍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로부터,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텍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워서 안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두가지 싸움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요(1-3), 세상과의 싸움입니다(4-5). 우리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시기와 다텍을 가져오고, 살인까지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살인으로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로서 공급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때때로 우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구 땅덩어리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음녀처럼 세상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음녀와 같이 세상에 도취되어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요17장).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살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자녀 중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라고 하면서 어려운 요청을 하는 아이는 주로 둘째나 세째입니다. 물론, 큰 아이가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빠는 이미 누구의 짓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현상들 속에서도 그것을 움직이는 중심 힘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두가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물론 중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움직이지만, 끊임없는 사단의 교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문화, 사상, 도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엡6:10-20). 그런데 안타까운 싸움이 있는데. 형제들과의 싸움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재판관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통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분노케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와 나의 뒤에서 음흉한 짓을 일삼고 있는 사단의 추한 움직임을 알 때 우리는 형제들과의 다툼을 그치고 사단과의 싸움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과는 싸우되, 형제들과는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제목 / ①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하소서. ② 정은회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어떤 자는 교만에 빠져서 망하고, 어떤 자는 자기비관에 빠져서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고 말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시간을 자기의 것인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주제넘은 말을 과감히 물리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것이 모두 허탄한 것입니다. 지혜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선을 행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감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교만에 빠져 자기 자랑을 알삼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너무 위축된 삶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 기도제목 / ① 인생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돈이란 매우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교회가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임금착취를 통해 자기 만족을 채웁니다. 마비되어 가는 양심은 악위에 또 다른 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연락의 노예가 되어 만군의 주와 심판하기 위해 문밖에 계신 분을 의식하지 못하고서 살아갑니다(4. 9).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당하는 사람의 원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과 금에 도취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물질지향적인 탐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그네 길을 유유히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생활과 삶에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돈에 치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통곡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재물은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흠음으로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돈에 매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고난의 기간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심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라고 권면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욥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격려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문밖에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심판자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신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결코 악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 고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짐을 받는 은혜만 간구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지 않고 심판대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반적으로 고난이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되는 고난까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질병에 걸렸고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하고 위대한 소망의 확실성과 그것의 현실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체험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찬송하라’는 말은 ‘노래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어른들을 청하여 기도해 주도록 부탁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나, 때로 죄로인해 질병이 들 수도 있으므로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열어 주의 강한 손을 보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자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종류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속에서 확인됩니다.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안팎으로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곧 밖으로는 조공국이었던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배반하도록 하신 것이며, 안으로는 아하시야의 몸을 치신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속에서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불러 블레셋의 성읍 에그론의 신 바알세뱀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알은 여러 형상으로 숭배되고 있었는데 에그론의 바알도 그 중 하나로서 매우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아하시야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에그론의 바알세뱀에게로 향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불행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의 한심스런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엘리야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다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중심이 확인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묻게 하옵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물은 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하는 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해오던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는 상황에서 또 한번 하는데까지 해보자는 식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시자,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엘리야를 자기의 권력을 방해하는 대적으로 규정하고, 예언자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자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가 보낸 병력 오십인을 불로 심판하심으로 아하시야의 계락이 그릇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또 다시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오십인의 병력을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들도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야는 또 다시 오십인의 병력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죽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그릇됨을 지적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이 때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된 행동의 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읍시다

▶ 기도 제목 / ①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주의 뜻에 순종케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보통,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관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고집스러워야만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선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벨엘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줄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워 온 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을 부르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이 시간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자신에게 확고한 약속이 주어지기까지는 결코 스승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의 거듭되는 '나는 갈테니 너는 남아 있으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스승과 동행합니다. 길갈에서 벨엘로 벨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을 '사역자의 프로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 고집과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주를 잘 섬기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은 아름답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② 농어촌 교회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느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10년동안 주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목회자는 처음부터 자신은 10년만 사역하고 떠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이 다가오자 후임자를 정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후임자는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좋은 후임자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스승을 계승하여 후임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엘리사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자신에게 임하기를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은사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친히 목격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엘리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겪게되는 난감한 현실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은사를 받았고(19-22절), 하나님은 엘리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엘리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선배보다 더 훌륭한 후배가 되려는 욕심은 귀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많이 자라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염려와 근심은 매우 힘이 강합니다. 그것들이 일단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온통 독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다른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이는 세상 염려가 씨를 자라게 하는 기운을 막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빌4:6).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나름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지만, 여전히 벨엘과 단의 우상숭배는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이 온전치 못한 마음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대책없는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반란을 꾀한 모압을 평정하기위해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왕의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원정길에 올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사와 생축들을 먹일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 여호람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10절). 염려와 근심이 그를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물을만한 선지자가 근처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자세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을 독점하려는 염려를 물리치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여쭙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쌀과 반찬들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내십니다. 결국, 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 분들은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인 것입니다. 사실, 응답을 받는 사람도 복되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모압 군대 앞에 도달하여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여호사밋의 지혜를 따라 엘리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왕 여호람에게 던지는 엘리사의 답변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밋의 낮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수많은 연합군의 생명을 구할 물의 근원을 여쭙는 기도가 오직 여호사밋의 존재함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여 저를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삼으시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철저히 유대적이며 율법주의적인 풍토에서 자랐으며 그 사회에서 소위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민는 자들을 색출하여 핍박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로서의 눈이 먼 충성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사로잡았고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위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바울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에게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되는 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교사들은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교회를 향하여 붓을 들어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할례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은 흔적을 사랑했던 바울의 애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본 구성

요점	이신득의의 변증		이신득의의 해석	이신득의의 적용	
문단	1:1	2:1	3:1	4:1	5:1
구분	6:18				
	사도권변증	복음권위의 변증	율법의 속박 은혜의 자유		자유의 선용
주제	복음의 권위		복음의 진리		복음의 승리
문체	기독교 핵심진리를 강경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한 변증적 서간문				
장소	남 갈라디아(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기간	A.D.47-70년				

제 1 과

갈라디아서 (1)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찬 송 / 409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1-10

먼저읽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안에서 정상적인 삶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체온을 재는 온도계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또한 어떤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평강이 떠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건강의 적신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 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절)

아닌 것	사실인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2. 갈라디아성도를 향한 문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2절) 특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3절)

•문안의 핵심:

•은혜의 내용:

3. 갈1:6-10 에서 다른복음이라는 말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행15:1참조)

4.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8,9절)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도됨은 철저히 예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직분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 직분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큰 힘을 얻은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2. 당신의 자녀들 또는 당신의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지금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도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보십시오.
3.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고후4:4)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 2 과

갈라디아서 (2)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찬 송 / 218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0-21

먼저읽기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일수록 훼손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흥분하는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그 원수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훼손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으로 붓을 드는 바울 사도의 중심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미꽃 하나가 피었다가 시드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로부터 받은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14절)

· 책망을 받은 이유(14절 전반부) :

· 책망받은 환경(14절 중반부) :

· 책망한 이유(13절) :

2.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16절)

· 보편적인 증거 :

· 성경적인 증거 : (시143:2참조)

3.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20절) 그리고 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20절)

· 하신 일 :

· 관계 :

-
4.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2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바울은 갈2:9에서 베드로를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의 위협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같은 행동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도 누군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때 분명히 책망할 수 있습니까?

2.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자신의 특정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 도덕적 선행으로 영적인 위안을 삼았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경험은 없습니까?

3.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수님께서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영역은 없는지를 돌아보시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앞으로의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예를 들면 물질생활, 시간사용, 자녀교육, 직장이나 사업에서)

제 3 과

갈라디아서(3)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찬 송 / 144장

읽을 말씀 / 3, 4장

공부할 말씀 / 3:1-14

먼저읽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고통을 깊이있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도대체 나의 삶 속에서 느낀 어떤 경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으로 인해 사망선고를 받아 고통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의 100분의1이라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시57:2)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1절, 13절)
2.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좇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강한 도전의 외침은 무엇입니까?(1절, 3절)
3. 바울사도는 갈3:6-9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상황속에서의 믿음이었습니까?(창15:1-6참조)

4.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입게 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십시오. ()안에 들어갈 공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 10절: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래에 있음

·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를 받으심

율법의 ()에서 우리를 속량하심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래 있는 자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 다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추구할 때에 바울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있게 체험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맛보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2.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만한일, 혹은 그 반대로 사람에게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만한 일을 최근에 겪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믿음이 부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었다면 나누어 보시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며 나누어보십시오.

4.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한 죄악으로 인해 매를 맞아야 한다면 몇 대 정도를 맞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모여있는 구역식구들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부를 찬양을 정해보시고 찬양하십시오.

제 4 과

갈라디아서 (4)

성령을 따라 걷는 한 걸음

찬 송 / 410장

읽을 말씀 / 5장

공부할 말씀 / 5 : 13-26

먼저 읽기

당신의 지금 이시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중심에 서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가운데 서 있다 하여도 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하여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계를 중심에 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발걸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갈5: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16절, 25절)
3.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는 어떤 것입니까?(16절)
4.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범해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와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방임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21절)
5.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은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을 따라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가 정말로 신령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22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막10:45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섬기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당신의 섬김의 자리들을 살펴 보십시오.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리고 자발적이지 못한 가운데 섬기게 되는 자리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2.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좇아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나 율법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누어봅시다.

3.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요10:10)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의 삶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갈5:19-21을 참고하시고 찾아보십시오.

4. 성령의 사람들은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올해 가장 맺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나누어봅시다.

제 5 과

갈라디아서 (5)

지금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찬 송 / 213장

읽을 말씀 / 6장

공부할 말씀 / 6:1-10

먼저 읽기

복음의 아름다운 씨를 뿌렸지만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바울사도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의 강한 어조 속에서도 그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배여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간절함이 배여있는 말씀입니다. 조급함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신령한 사람은 갈5:16에 의하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1
절, 2절)
2.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경적인 원리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3
절)
3. 하나님이 마땅히 지도록 주신 짐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도 우쭐하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같은 사람들
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4,5절) 또한 우리가 자랑하여
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14절)

4.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고 거두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8절) 이와 같이 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합니까?(9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그런지를 나누어 보시고 당신 자신이 신령한 삶을 살기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2. 잘못나가는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집을 지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잡는 일은 마치 어부가 자기의 그물을 바닷가에 서 하나하나 살피며 기우며 보수하는 것과 같은 세밀함과 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사역과 관련된 당신의 가장 어려운 대상과 난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할 때 우리는 자랑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영생의 능력을 주시며 마땅히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에서 혹시 자랑이 앞서는 경우는 없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찬213장 4절참조)

4. 농부가 봄에 푸석푸석한 땅에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서 그 땅에서는 새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씨도 뿌리고 계속해서 물도 주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은 없는지 나누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나누어봅시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9과

성공

찬 송 / 231장

읽을 말씀 / 롬 12:2, 딤후 4:7~8

외울 말씀 / 딤후 4:7~8

1.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표지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2. 다음의 항목들을 보면서 주 안에서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다. 그리고 그 항목을 체크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 * 감옥에 갇힌 요셉()
 - * 총리가 된 요셉()
 - *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쫓겨 다니는 다윗,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기쁨부음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살려주게 되고 결국은 불레셋으로 밀려나는 다윗()
 - *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 *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
 - * 하나님께 약속한 경건의 삶을 지키고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 *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
- * 요단강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며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
- *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기뻐하는 세례요한()
- * 헤롯의 범죄를 지적함으로 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요한()
- *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 *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롬12:2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든지 변질되든지 둘 사이에 끼여있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볼 때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만 지나치게 변질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딤후4:7, 8을 읽어봅시다.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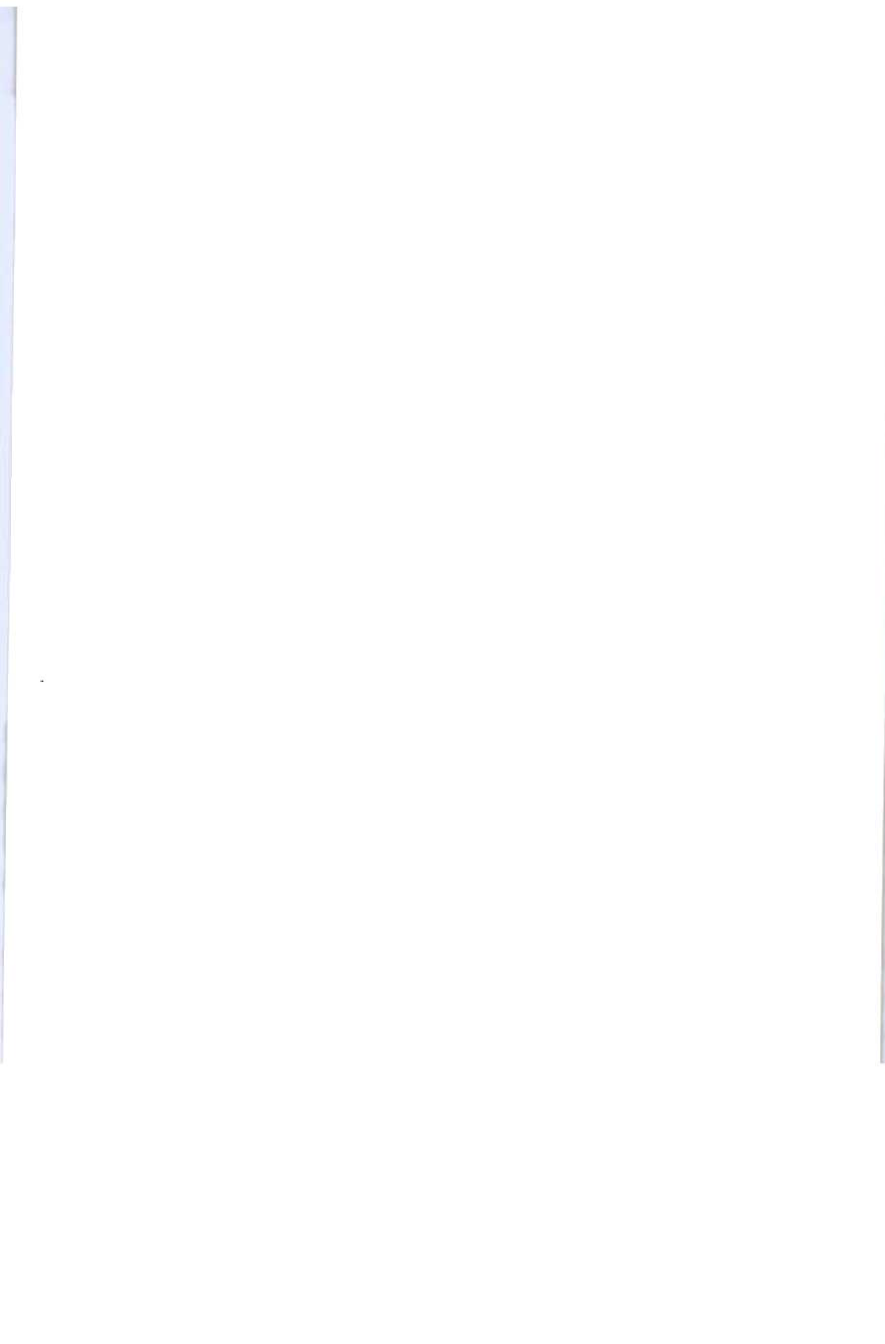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4. 위에서 읽은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사도가 지금 처한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 그가 있는 장소:
- 그의 신분:
-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 이제 곧 그에게 일어날 일:

5.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 당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 임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사도의 고백을 하실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0년 3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갑신, 김병태, 김인식, 이승학 목사

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